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말라기서 강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자

(말라기 3:7-12)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마치 자기의 것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 하는 일이 됩니다. 소득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죄가 됨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 맡기신 물질을 마치 제 것 처럼 생각하는 것은 청지기 직분을 상실한 불순종의 죄가 됩니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며 헌신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4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지금은 어떠하냐고 하면서 섭섭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냅니다.

1.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나 여호와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6절).

변한다는 것은 좋은 뜻도 있겠지만 나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부분도 있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속성을 분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꾸만 변합니다. 좋게도 변하고 나쁘게도 변하고, 원해서 변하고 또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존성 등은 도저히 우리가 닮을 수 없는 속성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 또 미쁘신 마음 등이 그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예배의 대상이시고 찬양의 대상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며 우리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의 말대로 하면 우리는 자꾸 변해야 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좇아 자꾸만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즉 내게로 돌아오라”(7절). 가만히 있지 말고 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느냐고 그 방법까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요청되는 때입니다.

2. 우리는 변해야 한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8절).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한 것을 지적합니다.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도 죄악일진대 하물며 하나님의 것, 곧 십일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다는 것입니다.

십일조에 대한 말씀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일을 너희가 행하라고 하셨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힘에 겹도록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십일조에 두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십일조 생활은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십일조 생활을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교인에게 십일조 생활은 마땅한 것입니다. 십일조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심분의 일 뿐만 아니라 나의 청춘도,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3. 희생의 요구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10절).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복종을 원하시는데 그것은 온전한 십일조입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하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는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접속사로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일조를 감사함으로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십일조를 드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복 받은 사람이라는 부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08 사명자 대회 오늘 발대식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교회설립 기념 주일까지 50일 동안 계속되는 기도와 말씀, 전도의 대회인 2008 사명자대회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5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번 대회를 섬기는 본부장(이완형 장로)은 사명자대회는 우리교회 설립 전 50일 동안 맨 바닥에 엎드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다른 하나의 교회가 아닌 이 민족과 세계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가진 교회를 허락해달라고 간구했던 그때를 추념하며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대회라고 말했다.

또한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어머니 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전



도하고 24시간 연속기도회와 열열이(다니엘)기도에 최선을 다 하라고 당부하였다.

사명자대회 본부에서는 지난 10월1일(수) '24시간 연속기도 현황판'을 제작하여 교회 1층 웨스트민스터 홀 앞에 설치하여 24시간연속기도에 힘쓰도록 준비를 완료하였다.

또한 오늘 주보에는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제목이 적힌 기도카드와 태신자카드가 간지로 성도들에게 배부되었다.

모든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태신자를 작정하여 전도에 힘쓰도록 기도한다.

706 특공연대 진중세례식

10월15일(수) 오후7시 - 새생명 교회



▶ 2007년 706 특공연대 진중세례식

706 특공연대 진중세례식이 10월15일(수) 오후7시 우리교회 비전2020운동본부(위원장 이갑진 장로) 주관으로 경기도 연천군 소재 새생명 교회에서 열린다.

우리교회는 민족의 75%를 복음화 하기 위하여 국군장병을 전도하는 비전2020운동을 활발히 펼쳐 사관학교(육사, 해사, 공사, 간호사관)를 비롯하여 3사단, 23사단과 자매결연하여 진중세례식을 비롯한 다양한 선교활동을 펴고 있다.

이날 진중 세례식을 위하여 당일 오후 3시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미리암 여성선교합창단' 창단

10월12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문화의 기독교화를 이루기 위해 산하에 한국기독교 문화진흥원을 설립하고 무지개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하여 지난 8월10일 찬양예배 시간에 창단을 가진 바

있는 우리교회는 오는 10월12일(주) 찬양예배 시간에는 '미리암 여성선교합창단' 창단식을 갖는다.

지난 6월10일(화) 오디션을 거쳐 단원을 선발하고 그동안 매주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하여 오고 있다.

앞으로 정기연주회와



해외공연, 병원과 구치소 방문연주 등 찬양과 복음이 필요한 곳에 찾아갈 예정이다.

한국기독교학술원 공개강연회

- 예수는 누구인가? -

10월10일(금) 오후2시 100주년 기념관

강사: 이종윤 목사, 김영한 목사

최근 한국사회에는 반기독교적인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29일부터 7월13일까지 4차례에 걸쳐 SBS가 '예수는 신화다'라는 프리키와 갠디의 책을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였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하여 예수의 신성과 구주의 유일성을 선포하는 신학공개강좌를 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성) 주최로 이종윤 목사와 김영한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10월10일(금) 오후2시부터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갖는다.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 바란다.

사랑부

노방전도 / 체력훈련 / 음악회

- 사명자 대회기간 중 -

우리교회 사랑부(부장 서춘식 집사)에서는 10월 12일에 교회주변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돌리며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심신단련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체력훈련을 갖고 있다.

또한 장애우 주일을 비롯한 교회행사 시 핸드벨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바 있는 사랑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정성껏 준비하여 11월16일(주)에 '사랑부 천사들의 음악회'를 갖는다.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함께 하는 한 가족으로서 깊은 교제를 바라고 있다.

기자: 이조은

금주의 성구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15-16)

and I have the same hope in God as these men, that there will be a resurrection of both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So I strive always to keep my conscience clear before God and man.(Acts 24:15-16 [NIV])

반갑습니다 - 권혁정 선교사

장애인의료선교로 영광을!

권혁정 선교사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 해주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아내(조경인) 아들 성안,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교회와 성도님들을 만나고, 3개월동안 교회목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천성 희귀난치병 지체장애(양쪽다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뼈가 휘어지고 성장하지 못하는 병 때문에 6세부터 30대 중반까지 10여 차례의 대수술과 병원의 긴 투병생활은 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죽음과 절망뿐인 내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소망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상에 누워있는 내게 북한동포 장애인들과 이방세계에 있는 장애인들의 치료할 기회조차 없는 고통을 보여주시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시고 날이 갈수록 점점 자라게 해 주셨습니다.

10여 년 동안 견지를 못했던 내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발 없이도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신학교를 휴학한 후 2003년 총회 신가톨릭 선교사로(1

년) 헌신하는 동안, 동남아시아의 땅을 밟으면서 전쟁 피해인(지뢰) 재해와 질병으로 팔, 다리를 잃은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준비하라는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한국으로 돌아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의료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3년동안 의료보장구(사지절단 장애인-의지, 보조기) 공부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2월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2달 후에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백만명의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만명의 장애인들이 발생 됨으로 신체가 절단되고 절망에 빠진 장애인들과 가족들의 울부짖음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을 만들어주면서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구원의 복음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서울교회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장애인 의료선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6)

만민에게 전도 - 선교보고

핍박 속에 성장하는 선교현장

강아름 선교사

평안하신지요?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저희들은 여름내내 6-70명의 학생들과 지내었습니다. 올림픽기간과 중복되어 극심한 긴장 속에 있었고, 방해하려는 세력들로 인해서 두 차례 밤 사이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던 일은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위험한 곳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안전하며, 가장 안전한 곳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곳이 되는 원칙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방해하는 세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신학대학은 낱알이 견고해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이제는 목연과정과 신학부 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원을 개설기 위해 여러 가지로 모색중에 있습니다.

또 조만간 어느 지역에서는 동아시아의 신학교 교수들의 퇴수회(수련회)를 저와 동역자들과 함께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상키로는 10분의 동아시아 학자와 한국의 동역자들이 함께 가지게 될 퇴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더욱 힘차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기도제목 >

1. 지키시는 주님께서 저희 동역자들과 신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단마귀의 발악도 그만큼 드세다는 것을 매 순간 체험하고 있는데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2. 저희 신학대학이 이제는 동아시아교회의 요청으로 학위를 줄 수 있는 상급과정의 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저희 앞에 놓여있는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3. 저희 아이 특히 큰 아이가 사춘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명자 기도 - 목회자의 기도



이중윤 목사

어둠이 짙어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이 백성을 보시고 주님, 우십니까.

거짓이 선을, 불의가 정의를 짓누르는 이 세상을 보시고 주님, 우십니까.

진리를 참이라 말 못하고 핑계만 하고 있는 우리의 나약함을 보시고 주님, 우십니까.

목소리만 크게 울리면서 행함이 없는 한국교회 때문에 주님, 우십니까.

변화를 두려워하고 자기 찢길 속에 웅크리고 앉아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이버 신자들 까닭에 주님, 우십니까.

마천루 높은 빌딩 숲속에서 질주하는 차들과 희희낙락하는 군상들을 보시면서 서울의 독사들이 남산의 암소들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올라 하십니까.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울고 계십니다. 주님 이 좋은 주님 대신 통곡을 하겠습니다.

사명자 대회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못다한 사명을 인하여 통회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건만 자기만 사랑한 죄를 자복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치 말라 하셨건만 근심의 노예가 되었던 불신과 분순종의 죄를 회개합니다.

꽃대를 향해 달려가라 하셨건만 암초 앞에 좌절했던 불충의 죄를 애통해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풍성한 이 가을, 우리 모두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만민에게 전도 - 선교보고

말라위 교도소 농장을 통해 복음을...

서울교회에서 아프리카 말라위로 파송 받은 김용진 선교사가 잠시 귀국하였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아프리카 동부 내륙 국가인 말라위 교정당국 책임자인 맥도날드 차오나 교정본부장 일행과 함께 아프리카 교도소 수용자들의 굶주림 해소와 사회복귀를 위해 시행 중인 기독교 '교정 농장 프로젝트(Crops of Love Project)'에 대해 한국 교회와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도록 요청하기 위함이다. (편집자 주)



▶ 왼쪽부터 말라위 방송인 마가니 조 마제제, 맥도날드 차오나 교정본부장, 말라틴 모오 농업국장, 김용진 선교사

마강가, 므퓨퓨, 미쿠유 교도소에서도 실시된다.

"말라위의 교도소는 감방이 비좁아 수용자들이 쪼그리고 자는 실정입니다. 경제난 때문에 대부분의 교도소 수용자들이 하루 한 끼 옥수수죽만을 먹고 있지요."라고 하며, 차오나 본부장 일행은 이 프로젝트 시행에 초기 자금과 농기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

하고 있는 김용진선교사는 "시범지역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케냐, 토고 등 아프리카 30여개국에서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선교사는 "농업용수를 끌어올리려면 모터와 양수기, 경운기 등의 구입비로 6억~7억원 정도가 들어가지만 말라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대상 국가에서 빠져 있어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김선교사는 말라위 수도 릴롱게 남쪽으로 차로 4시간 떨어져 있는 도시 블랜타이어 인근 마칸디 교도소 구내에서 작년 6월부터 살며, 이 교도소 땅 7만㎡에서 시범 사업에 들어갔다.

김선교사는 2년 내 말라위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현재 지원을 요청해온 짐바브웨, 우간다, 잠비아 등 5개국에서도 활동할 예정이다. (편집부)

김용진 선교사는 "수용자들이 불우 이웃을 돕는 것은 출소 후에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프리카 교도소 농장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한국 교회의 관심을 요청합니다."라고 호소하였다.

옥수수 쌀 콩 등 곡물을 생산해 절반은 재소자용으로, 나머지는 빈민층 지원에 쓰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골자다. 수용자들은 오전에는 농사를 짓고 오후에는 학과교육, 기술훈련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기독교 정신에 따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훈련을 받게 된다. 필요에 따라 급여를 받아 외부 가족을 부양할 수도 있다.

말라위 남부 마칸디 지역에서 지난 1월부터 시범 실시 중이며 내년 2월부터는 1만1000여명에 달하는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순서는 수요 2부 예배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시온찬양대의 찬양으로 준비된다. 올해 들어 찬양예배를 외부의 저명한 음악가들을 초빙하여 드리는 순서와 함께 우리교회 내의 여러 찬양대와 음악인이 동참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시온찬양대는 그 다섯 번째 순서가 된다.

D.Governor 작곡 '거룩하신 주 성령' 외에 3 곡으로 드러질 오늘 저녁 순서는 백경화 집사의 지휘와 오르가니스트 이순재 선생, 팀파니스트 박광서 집사 그리고 피아니스트 박해인 선생이 수고한다.

등정

- 이종윤 목사는 7일(화)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주최하는 교단장 초청모임에서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의 2009년도 행사설명회를 갖는다. 9일(목) 장로교신학회 월례발표회를 소집한다. 10일(금) 한국기독교학술원 학술세미나에서 '성경의 예수, 그는 신학적 인물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
- 선양: (9교구) 오정수 장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장
- 목사고서 합작: 박광일 전도사(디아스포라부 지도)
- 이영조 집사 (음악감독): 대편성 오케스트라와 연합합창을 위한 4개의 찬양곡 발표. 예술의 전당 음악당 10월7일(화) 저녁 8시(문의011-9740-0212)
- 출간: 오영숙 권사(12교구) 셰익스피어 4대 비극(헨릿, 리어왕, 맥베스, 오셀로, 로미오와 줄리엣) 완역 출판
- 개업: (12교구) 장덕·임인자 집사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476-6 병점 북비오 아울렛타운 '그렉 노먼 골프웨어 상설점' Tel:031)222-5778
- 이전 개업: (11교구) 한상준 집사 '서울인슈(보험)' 의정부시 의정부1동 214-84 남평플라자 2층 T. 1544-3144

- 주간 식당 봉사: 베드로선교회(10.5) 엘리야선교회(10.12)
- 금주의 식사: 최난수 권사(범사에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나눔의 집 기증품 접수

우리의 이웃들과 목회자신학세미나에 참석하는 교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나눔의 집에서 성도들이 기증하는 의류 및 생활용품을 기다리고 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린다.



2008 성경 암송대회

예선: 10월 19일(주) / 본선: 10월 24일(금)

금년 성경암송대회는 예선을 10월 19일(주)에 본선을 10월 24일(금)에 갖는다. 암송범위는 베드로 전서 1-5장 전장이다.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08 사명자대회 은혜 받고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2. 서울성경대학·주부대학·경로대학 등 각종 열린프로그램들 열매가 풍성하도록
3. 3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다락방 모임에 성령의 인도하심 있기를
4.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도록

